

지역 매아리



정읍 평생학습축제 21·22일 진행

제12회 정읍 평생학습축제가 열린다. 주제는 '배움으로 하나되는 행복도시 정읍!'이다. 기간은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장소는 연지아트홀과 연지아트홀 주차장이다. 축제는 평생학습기관 단체, 학교 및 동아리가 참여할 예정이다. 무대발표회와 홍보 체험관 운영, 성인문학 시화전시, 이벤트 행사가 진행된다. 평생학습동아리 무대공연에는 밴드 통기타, 난타 등 14팀이 참여한다. 또 25개의 홍보체험부스에서는 예곡백민화부채, 가족지갑 등 각종 공예품 만들기 및 쿠키, 컵케이크 만들기 등 다채롭게 재미있는 체험 기회를 무료로(일부 유료) 제공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경찰, 노인 교통사고 예방 홍보

부안경찰서는 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대책의 하나로 11일 부안읍 예동마을 등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농촌마을을 찾아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부안군의 경우 노인인구의 비중이 지역 전체인구의 28.9% 차지하여 전국평균 13.6%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동민 서장은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고 능력이 교통사고에 노출된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며,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고창군이 오는 11월 말까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지방세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미환급 납세자에게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직접 통화 환급대상자 제외번호 조사, 읍면사무소 홍보 등을 펼치고 있다. 환급 안내문을 받았다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인터넷 등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고창=김영식기자

단풍의 고장 예능수도로 거듭난다

정읍시, 오늘부터 13일까지 메이플 스타 오디션 제2차 예선전 진행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12일, 13일 양일에 걸쳐 제1회 메이플 스타 오디션 제2차 예선전이 진행된다. 관련해 시는 메이플스타 공식 홈페이지(www.mapkstar.kr)를 통해 8월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차 접수를 받았고 서류심사와 동영상 심사를 통해 지난 8월 1차 예선 합격자를 발표할 바 있다. 1차 예선 합격자들은 오는 12일과 13일에 나눠 2차 예선을 치르게 된다. 2차 예선 통과자들은 19일부터 21일까지 정읍학생수련원에서 합동 팀들을 배출한 강사진과 합숙을 하며 고도의 트레이닝을 받는다. 본선은 22일(일요일) 저녁 7시 정읍시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오디션은 K-POP 부문(춤 노래), 개그 부문, 연기 부문 기타 모델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오디션에서 선발된 청소년들에게는 K-스타 방송과 연계해 뮤직 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디지털 싱글 앨범을 발매할 기회를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최초의 오디션인 메이플스타오디션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접수 폭주로 메이플스타오디션의 공식 홈페이지가 2번씩이나 다운됐을 정도다. 메이플스타오디션이 청소년들에게 이처럼 인기를 끄는 이유는 지자체 최초로 열리는 오디션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에 목말라있던 지방에서 열리는 오디션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 그동안 각 분야에서 뛰어나지만

양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오디션에서 선발된 청소년들에게는 K-스타 방송과 연계해 뮤직 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디지털 싱글 앨범을 발매할 기회를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최초의 오디션인 메이플스타오디션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접수 폭주로 메이플스타오디션의 공식 홈페이지가 2번씩이나 다운됐을 정도다. 메이플스타오디션이 청소년들에게 이처럼 인기를 끄는 이유는 지자체 최초로 열리는 오디션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에 목말라있던 지방에서 열리는 오디션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 그동안 각 분야에서 뛰어나지만

도전할 방법을 찾지 못해 꿈을 접었던 지역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이번 오디션을 계기로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오디션과 함께 정읍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도 부족 높아졌다. 정읍은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KTX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문화관광도시이자 전라도의 소문난 맛이 집합되어 있는 고장이기도 하다. 김생기 시장은 "맛과 멋, 편리함이 갖춘 정읍에서 열리는 오디션만큼 참가자 가족과 친구 등 많은 이들이 응원 겸 여행을 위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내 고장 주소찾기 운동' 추진

지방 소멸 위기극복 6만 인구 회복 위해 발 벗고 나서

고창군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6만 인구 회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1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고 함께 뛰는 고창 고창사랑 인구 늘리기를 적극 추진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구늘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인구감소지역 통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고창군 인구정책을 마련을 위한 시책발굴 보고회(총 3회) 개최 등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장기적 로드맵의 구체화를 위해 전문가를 초청 내년 상반기 중 인구정책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인구 유입 시책의 일환으로 '전 군민이 함께하는 내 고장 주소 찾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 고장 주소 찾기 운동을 통해 고창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미집인자를 집중 발굴해, 올 연말까지 고창군으로 주소를 이전 할 수 있도록 고창군 주소이전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창군 공직자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구성원 기업체 임직원 마을 이장 등 모든 군민들이 주축이 되어 전입운동을

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청 내 각 부서들은 담당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해 임직원에게 고창군 인구정책에 대해 홍보하고 고창군 주소 찾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인구전입 독려활동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군의 6만 인구 회복은 고창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로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인구정책의 장기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과 정책을 찾고 여성의 시각에서 결혼과 출산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마련하여, 저출산 극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개선사업 박차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광역교통망 건설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광역교통망 건설을 민선 6기 도로분야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투자 중이다. 군은 올해 초 개통된 국도23호선 고창~성송 구간 6.8km 확포장 개통에 이어 고창군 흥덕면~부안군 행안면

까지 25.5km(1497억원) 구간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심원면 공산리~아산면 삼인리까지 국도22호선 13.45km(489억원)과 고창군 고창읍에서 장성군 백안시IC 구간 국지도15호선 5.97km(490억원), 장성군 북일면 구간 국지도 49호선 2.65km(353억원) 등 총연장 60.67km에 대해 사업비 3868억원을 투자하여 확

포장 및 선형개량 등 도로개선사업에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들을 통해 고창군은 정읍시, 부안군, 전라남도 영광군, 장성군 등 인접 시·군과 연계되는 광역 교통망 정비로 전라남북도를 잇는 교통 요지로서 면모를 갖추고 고창군을 찾는 관광객 증가는 물론 교통물류비 절감을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 인접 시·군과 활발한 교류 및 상생방안 강구 등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기자

'반계 유형원과 동아시아 초기실학' 부안군, 국제학술대회 13일 개최

전북도와 부안군이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며, 한국실학 학회가 주관하는 반계 유형원과 동아시아 초기실학 국제학술대회 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그간 전라북도도와 부안군은 호남 실학을 재조명하고 반계 유형원 선생의 실학사상을 계승하려고 지속적인 연구와 연차 학술대회를 가져왔다. 지난 2012년 제1회 '반계 유형원 선양사업'과 2013년 제2회 '반계 유형원의 실학사상과 계승 방안 2014년 제3회 '반계 유형원의 저술을 통한 계승방안' 2015년 제4회 '반계 유형원과 호남실학 교류와 전승' 2016년 제5회 '국제적 시각에서 본 반계 유형원의 실학사상' 등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반계 유형원의 호남실학이 한국을 벗어나 동아시아 초기실학에서 가지는 위치를 재확인하고, 나아가 한국 실학사상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 학술대회' 개최

정읍시(시장 김생기)가 주최하고 한국민족운동사학회·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열 의원이 주관하는 제123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학술대회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50주년과 정읍지역 민족운동'이라는 주제로 최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50주년의 성과와 의미라는 주제로 동학역사문화연구소 조광환 소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하였다. 조광환 소장은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창립된 후 군사장권의 탄압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최된 동

학농민혁명기념제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그 의의에 대해 짚어보았다. 이어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와 정읍(박대길,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정읍 황토원동학농민혁명기념제 활성화 방안(에 따른 시련김인덕, 정인대 교수) ▲정읍지역 천도교인의 민족운동(1905~1945) 조규태, 한성대 교수) ▲1920년대 정읍지역의 민족운동(조성운, 동국대 강사) ▲동학농민혁명의 계승과 민족운동의 역사적 의미(황민호, 숭실대 교수 등 다섯 가지 주제발표와 함께 분야별 전문가들의 열띤 학술 토론이 진행되었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매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GIFT SET 1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 | 750ml 1ea/12%

GIFT SET 4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 | 375ml 5ea/13%

GIFT SET 6 | 500ml 장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